“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하세요”

서울시, 외국인 확진자 비율 늘어
백신접종·선제검사 독려 캠페인
여러나라 언어 포스터 제작·부착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백신 접종과 선제 검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확진자 대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6.3%에서 지난 8월 9.2%로 2.9%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자치구, 경찰서, 외국인 지원시설과 구로·영등포·용산 같은 외국인 밀집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선제 검사 독려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8일에는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서울글로벌센터 관계자, 중국동포 단체가 합동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외국인 주민 백신 접종 독려 포스터. /서울시

시는 18~49세 백신접종 사전 예약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서울 서남권 등 외국인 밀집지역 소관 자치구와 외국인 지원시설 18개소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선제검사 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지난 8월 선제검사 독려 포스터를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출입이 많은 건설 현장, 직업 소개소를 포함 4475개소에 부착한 데 이어 오는 10일까지 옥외전광판, 지하철 승강장 2만9664곳에 선제검사 독려 영상을 송출키로 했다.

외국인주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13개 국어)는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백로’ 가을빗 속 출근길 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인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가을비 속에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1인가구 병원 갈때부터 귀가까지 ‘동행’

서울시, 11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신청 3시간안에 원하는 장소로 방문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콜센터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동행자가 늦어도 3시간 안에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온다. 병원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절차뿐 아니라 집에서 출발해 귀가까지 모두 함께해준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해주고, 시민이 희망하면 진료받을 때도 동행한다.

이용 대상은 전 연령층의 1인가구,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다.

시 관계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유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며 “기존 민간·공공 서비스의 경우 어르신 위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2~3일 전에 예약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연간 6회, 주중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7일까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다. 시는 내달 1일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간편 민원신고 ‘서울톡’ 접수대상 확대

서울시, 주차구역 위반 등 추가

서울시는 카카오톡 챗봇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톡’의 민원 접수 대상을 기존 46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 금연구역 지정 요청, 보도 불편 신고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사항이 접수 대상에 추가됐다.

서울톡은 카카오톡으로 서울시 행정정보(420종)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을 24시간 자동 답변해주고 현장민원 접수, 공공서비스 예약도 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다.

작년 2월부터 시민을 위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17만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톡을 검색, 채널(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시는 그간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매번 입력해야 했던 휴대폰 번호를 앞으로는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 접수 시 알림톡을 발송,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장민원의 77%를 차지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도 앞으로는 AI가 처리하게 된다.

챗봇 서울톡 이용 예시. /서울시

시는 향후 서울톡을 통한 도서관 이용 안내, 평생학습 수강신청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보 총망라 홈피 오픈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는 이달 8일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한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그간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해진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아울러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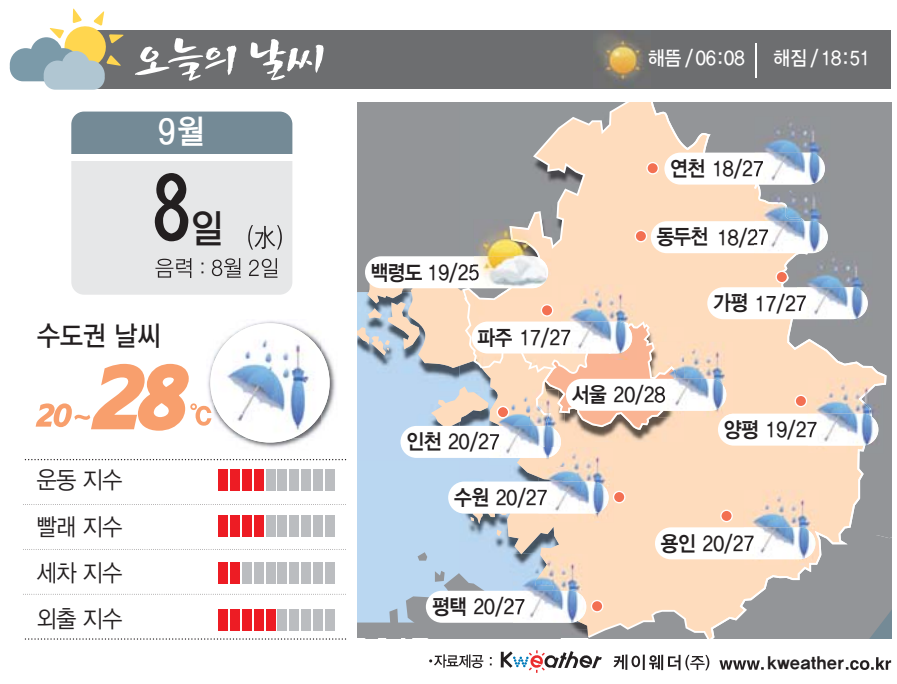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검정고시 등 과정 추가

서울시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검정고시, 자격증, 취업강좌 등 비교과 과정을 8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서울런에 에듀윌 사이트를 연계해 검정고시 콘텐츠 121강좌와 자격증, 취업강좌인 전문자격강의 176개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없이 ‘서울런’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오픈강의’도 늘어난다.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미용사, 관광통역사 등 38개의 자격증 강좌가 새롭게 탑재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얀마 임시정부, 군부 상대 ‘저항 전쟁’ 선포
▲ 탈레반 “아프간 재건 韓도움 절실… 한국 대사관 다시 열어달라” /사진 뉴시스

▲ 중국 8월 수출입 전년보다 18.9%↑ …무역수지 3763억 위안 흑자
▲ 美상원 외교위, 내주 아프간 청문회 개최…블링컨 국무장관 출석 /사진 뉴시스

▲ 日, 수도권 등 긴급사태 연장 검토… 이번주 결정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전 200개 구입 /사진 뉴시스